

# 1인 가구 정책 이용률 제고 아이디어 연구

이송은<sup>1</sup>, 김덕영<sup>2</sup>, 문영민<sup>3</sup>, 박민선<sup>4</sup>, 신하영<sup>5</sup>, 오혜인<sup>6</sup>, 조하영<sup>6</sup>

[<sup>1</sup>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원, <sup>2</sup>고등학교/교사, <sup>3</sup>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sup>4</sup>오픈도어/이사장, <sup>5</sup>서초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장, <sup>6</sup>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연구원]

## 1. 서론

우리 사회 홀로 식사와 취침을 하는 가구(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가 된 지 십 년이 훌쩍 넘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는 이제 전체 가구의 5분의 2를 넘어 절반을 향해 가고 있다. 수가 많아진 만큼 1인 가구 형성원인이나 특정도 다양해졌고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도 제각각이다. 사회에 중요한 인구집단이 된 1인 가구들도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고 있는 인구환경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인 시기이다.

정부에서 2020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달라진 인구환경에 따라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혼자 살아가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도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집중하는 1인 가구 지원영역은 주로 혼자 살기 시작하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주요한 어려움, 즉 고독과 고립, 영양, 안전, 주거 등의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1인용의 식재료를 쉽게 구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기 쉬운 1인 가구들에게 영양가 있는 재철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함께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양과 사회적 고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서비스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1인 가구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191개이며,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up>1)</sup>. 그러나 관련 실태조사들에 따르면 정작 1인 가구가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치며, 실제 1인 가구 지원정책을 이용한 경우도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인 가구 정책이 1인 가구의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절한지 확인하고, 1인 가구들의 정책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확인,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정책 필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1인 가구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미이용 원인과 보완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1인가구 정책 이용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율성과 이용율을 높일 정책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제안하였다.

1) “지자체 5곳 중 1곳, 독자적 ‘1인가구 정책’ 아예 없다. 한겨레.(2023.11.27.)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7928.html](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7928.html)

## 2. 본론

### 2-1. 청년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및 정책·서비스 미이용 원인 분석

#### 1) 청년 1인 가구 정책 필요 및 욕구 조사 (Focus Group Interview)

##### (1) 연구방법

-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로 겪는 어려움, 1인가구 정책 이용 경험, 정책 욕구,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거주 지역별 차이 등 청년 1인 가구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
- (일시·방법) 2024년 4월~8월 동안 20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진행 방법을 통해 인터뷰를 시행. 동시에 영역별 현장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함
- 참여자 정보

표 1. FGI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대
#1	남	30대
#2	여	30대
#3	여	20대
#4	남	20대
#5	남	20대
#6	남	20대
#7	남	30대
#8	여	30대
#9	남	20대
#10	여	20대
#11	남	30대
#12	여	20대
#13	남	20대
#14	남	20대
#15	남	30대
#16	여	30대
#17	남	30대
#18	여	20대
#19	여	30대
#20	여	20대

- 인터뷰 영역 및 주요결과

표 2. FGI 인터뷰 주요결과

구분	주요내용
주거/환경	>>주거 - 경제적 부담 - 안정적 주거확보에 대한 어려움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좁은 공간</li> <li>- 외부환경: 주거 밀집도, 소음, 쓰레기문제 등</li> </ul>
건강/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급상황(질병, 사고)</li> <li>» 불균형한 영양</li> <li>» 정신건강</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li> <li>» 거주지 안전에 대한 염려</li> </ul>
사회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관계망 욕구</li> <li>»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우려</li> <li>» 지속 가능한 관계 희망</li> </ul>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이용경험 및 의견</li> <li>»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제안</li> <li>» 신규정책제안</li> </ul>

○ 분석 세부결과 (추후 학술지 게재 예정으로 일부만 수록하였음)

### ① 주거 / 환경

- 주거비 부담 : 청년 1인 가구들은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상대적으로 다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을 포기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만족도 높은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주거환경 열악 : 주거공간이 비좁아 물건 보관이나 요리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주거상태가 노후하고 주변환경의 위생상태가 떨어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응답
- 외부환경 : 주거 외부의 환경에서도 사생활 침해 등 높은 주거 밀집도로 인한 문제, 층간·벽간 소음, 쓰레기 문제, 위생 문제 등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함 호소

### ② 건강, 영양

- 위급 상황 시(질병, 사고) 대처: 혼자 살면서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경우에 대한 어려움 호소. 특히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홀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이후로 이에 대한 걱정이 많음
- 불균형한 영양: 혼자 요리를 하고 식사를 챙겨먹는데 대한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음. 매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배달음식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 발생
- 정신 건강: 1인 가구로 생활하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자주 경험.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기 쉬우며, 위기상황에 이전보다 쉽게 노출됨

### ③ 안전

- 혼자 살면서 주거 침입 등 범죄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1인가구들이 생활하는 주거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는 귀갓길 범죄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거주지 및 거주지 주변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방법용 호신 물품 등을 지원 받거나 스스로 구입하여 위험 상황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함

### ④ 사회 관계망

- 사회관계망에 대한 욕구 있으나 충족할 채널 부족: 새롭고 다양한 관계 확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만남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만한 만족스러운 채널을 찾지 못한 경향이 있음

### ⑤ 정책제안

-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서비스 제공방식 효율성 향상에 대한 제안 등이 이루어짐  
: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 및 1인 가구도 수혜의 대상만이 아닌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음이 발견됨
-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에 대한 제안  
: 1인 가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임에 대한 불만이 존재.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직장인 1인 가구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과, 서비스 이용 장소가 1인가구 생활지역 혹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려운 점들이 발견됨  
: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시간 확대를 통한 직장인 및 학생이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 필요
- 서비스 제공 대상 범위 확대)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서비스의 이용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

## 2) 1인 가구 정책 미이용 유형 분석

### (1) Q방법론<sup>2)</sup>

-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원인에 대한 진술문을 구성하여 미이용 유형을 분류하는데 Q방법론을 적용하였음. Q방법론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신념, 태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2) 김순은. (2016). Q 방법론과 사회과학(개정판). 조명문화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론임

- Q방법론의 특성

- 주관성으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를 수량화하여 패턴을 도출
- 탐색적 성격으로 새로운 의견이나 신념 구조를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사용됨
-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특정 진술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표본 수가 30~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연구의 특성을 띄고 있으나 통계적 처리는 양적 방법론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두 연구방법론의 성격을 혼합하여 가지고 있음
- Q방법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으며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가능하므로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음

(2)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정책을 미이용하는 경우, 미이용 원인과 미이용 상황에 대한 맥락을 진술하는 진술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미이용 유형을 분석하는 Q분석을 실시하였음  
⇒ Q분석결과 4개 유형의 미이용 유형이 도출되었음

표 3. Q방법론 영역별 진술문

<p>(1) 프로그램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다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p> <p>(2) 실적을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p> <p>(3) 프로그램 담당자가 1인 가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p>	<p><b>1. 낮은 서비스 내용과 질: 서비스 질, 낮은 기대, 담당자 역량</b></p>
<p>(4) 1인가구를 지원한다는 점 자체를 생각지도 못했다.</p> <p>(5)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채널이나 창구가 없다.</p> <p>(6)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해본 적도 없다.</p> <p>(7) 프로그램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나 내가 자격조건에 맞는지 정보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서 포기할 때가 있다. 현재의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는 현재의 취약 대상자를 찾고 있지, 찾아올 위험에 대비하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p>	<p><b>2. 정보의 낮은 개방성, 정보 부족</b></p>
<p><b>3-1 대상</b></p> <p>(8) 1인 가구 지원을 직접 찾아보는 편인데 자격을 보면 원하는 서비스는 항상 소득구간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용하지 못한다.</p> <p>(9)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바뀌어야 이용할 수 있다.</p> <p><b>3-2 시간제약</b></p> <p>(10)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대를 보면 서비스 제공자를 배려한 서비스일 뿐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예: 진행시간대,</p>	<p><b>3. 정책, 서비스의 한계성 : 대상(수급자격 등), 시간 공간적 제약</b></p>

<p>이용장소 등) (11) 내가 필요한 시간이나 상황에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시간, 대상, 소득 조건 등)</p> <p><b>3-3 공간계약</b> (13) 서울에 주거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내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사람은 되고 어느 지역사람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사람들(직장인, 대학생, 주말부부 등)은 이용할 수가 없다</p> <p><b>3-4. 지자체 및 지역 간 지원(정책) 불균형</b> (15) 1인 가구 지원은 지자체마다 가장 차이가 큰 정책 중 하나인거 같다.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사오고 나니 더욱 확연히 차이를 느낌 (16) 1인 가구 정책은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정책으로부터도 소외되기 마련이다.</p>	
<p><b>4-1. 타인의 낙인</b> (17)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18) 1인 가구라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예상치 못한 편견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굳이 드러내고 싶고 않다.</p> <p><b>4-2. 본인의 낙인</b> (19) (나도 1인 가구지만) 혼자 사는 사람 지원해주면 결혼안하고 계속 혼자 살 것 같다. (20) (나도 1인 가구지만) 1인 가구 지원해주면 결혼 안하고 출산도 안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1인 가구에겐 패널티를 줘서 빨리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b>4. 사회적 스티그마: 타인, 본인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b></p>
<p><b>5.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b> (21) 1인가구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지원 받고 싶지는 않다.</p>	<p><b>5.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b></p>
<p><b>6.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b> (22) 1인가구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싶어서(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신청할 생각을 못했다. (23)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24)현재의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는 현재 취약 대상자를 찾고 있</p>	<p><b>6.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b></p>

<p>지, 찾아올 위험에 대비하는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정책의 한계? 서비스 필요를 못 느낌?)</p>	
<p><b>7. 기타: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b>          (24) 전에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 다른 목적(결혼이나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는 노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다.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          (25)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더 분위기가 어색하고... 귀찮하다고나 할까</p>	<p><b>7. 기타: 1인 가구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b></p>
<p><b>8. 영역별(주제별) 미이용 요인</b>  <b>8-1. 건강</b>          (26) 병원동행서비스의 경우 병원에 갔다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병원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치료받고 약 처방받고 다음 진료 예약까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b>8-2. 주거환경</b>          (27) 많은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주거일 것이다. 청약부터 1인 당 최소주거면적까지 1인 가구가 살기에 편하지 않은 사회환경이다. 그런데 현재 1인 가구 정책은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편적인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내놓으니..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큰 의미가 없다.  <b>8-3. 고립</b>          (28) 혼자 고립된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웃으로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은 먼저 찾아가서 끄집어 내주어야 한다.          (29) 누구에게 터치받는게(귀찮게 하는게) 싫다(개인주의).  <b>8-4. 생활 역량</b>          (30) 정리정돈, 청소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생활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여서 수업 듣는 것으로 되겠는가. 맞춤형으로 실제적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  <b>8-5. 안전: 범죄/사건사고로부터의 취약성</b>          (6) 주변에 혼자사는 게 알려지면 범죄타겟이 될 수 있을 것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7) 1인 가구인 것이 노출되는 것의 두려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p>	<p><b>8. 영역별(주제별) 미이용 요인</b></p>

## 2-2. 1인 가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 1) 목적

- 1인 가구의 정책 욕구 및 정책 미이용 원인,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1인 가구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정책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아이디어는 1인가구의 정책 미이용 원인을 보완하고 정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되, 기존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 정책실현 예시를 함께 제안하고자 하였음

### 2) 핵심 내용

-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공간 운영을 제안
- 1인 가구와 지역사회가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교류와 돌봄역량을 강화 하도록 독려하고자 함

### 3) 제안배경

- 영양 및 신체건강 개선 필요성: 1인 가구는 요리를 함께 하거나 식사를 챙길 사람이 없어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간편식, 배달식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또한 1인분의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영양 면에서 불균형한 식사를 하기 쉬움
  - ※ 1인 가구의 경우 과일과 채소섭취부족(76.6%), 영양섭취부족(14.5%), 비만유병률(19.2%)이 높아 건강 및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기 쉬움(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 2021-2025)
  - ※ 청년 1인 가구 중 외식 또는 매식을 매일 1회 이상으로 하는 비율 10.6%, 주 5~6회 하는 비율 8.5%, 주 3~4회 28.1%임. 또한 최근 1년 간 주로 혼자 식사했다는 청년 1인 가구 비율 52.1%로 청년 전체(20.6%)의 2배 이상(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 쓰레기 감소 및 친환경 실천 필요성: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며 쓰레기 배출 방식, 세척여부, 분리수거 등에서 평균적으로 덜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인 가구가 구매한 식재료를 소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결과적으로 간편식 식사에 치중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많음. 4인 가구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1인당 24.89, 1인 가구는 52.75로 월등히 높음(그린피스 2021년 집콕조사를 통해 살펴본 플라스틱 팬데믹)
  - ※ 1인 가구의 경우 조리 전 쓰레기보다 먹고 남은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모든 형태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며, 상하거나 오래되어 음식을 버리는 경우도 2~4인 가구보다 높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 사회적 관계망 촉진 필요성: 1인 가구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전체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이 필요함

※ 1인 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전체에 비해 매우 만족(15.6%)이나 약간 만족(34.5%)의 비율은 낮고 약간 불만족(6.4%)이나 매우 불만족(1.6%)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사회조사, 2023)

#### 4) 세부내용

##### (1)사업개요

###### ○ 활용데이터

- (1) 전국 가족센터 위치 : 여성가족부\_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데이터
- (2) 1인 가구 밀집도 :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통계청)
- (3) 음식점 및 식료품 판매점 밀집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4)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데이터
-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삶실태조사

###### ○ 사업목적

-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
- 1인 가구와 지역사회가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교류와 돌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자 함

○ 운영 방식: 지역 내 누구나 자유롭게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기부된 물품 중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선순환으로 운영

○ 운영 장소: 가족센터와 동주민센터 내 장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가족센터 위치와 1인 가구 밀집도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별도 공간 지정 운영

##### (2) 운영 세부 내용

###### ○ 관리 방안

- 관리주체: 자율적으로 기본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1일 1회 상태 점검 및 확인
- 설치장소(안): 이용접근성과 운영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족센터, 동주민센터 등 활용

###### ※ 설치장소 선정 고려 사항

- 지역사회 내 공동체 활성도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함
- 냉장고·캐비닛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가 가능, 용이한 위치를 고려
- 접근 쉽고 가능한 위치로 평등한 접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
- 시장, 마트 등 식재료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음

○ 운영방식

- 지역 내 누구나 자유롭게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기부된 물품 중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선순환으로 운영
-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1) 공유 냉장고 기부 전 확인사항

- 신선도: 신선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만 기부하기
- 활용도: 내가 사용할 곳이 있는가? 못 먹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곳이 없는 음식만 기부하기
- 포장상태: 밀봉하거나 포장했는가? 음식을 비닐 포장용기 등에 밀봉 및 포장하기
- 유통기한: 유통기한 표기 명확히 하기
- 공유음식 리스트 : 공유가 불가능한 음식 리스트를 제공하고 포함되는 음식은 공유하지 않음

(2) 냉장고에 음식을 넣는 방법

- 날짜, 음식 이름, 무게, 양, 이름 기록하기 (저울 비치)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 종류에 따라 구분하기

※ 출처: [www.hubbub.org.kr](http://www.hubbub.org.kr) "community fridge 'how to guide"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 보완함

(3)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 기존 운영사례

- 지역사회 기반으로 등산로 생수 나누미 냉장고 등 형태로 운영되거나, 민간 단체의 사업으로 시도되었으나 1인 가구의 필요와는 연관성이 적었음
- 구체적인 정책 타깃이 있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 높아지며 기존 사업 (1인가구 및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발생

○ 데이터기반 위치 선정 (연구팀 자체 분석)

- 사례1: 영등포구

- 영등포구의 경우 양평 1,2동은 1인가구 밀집도는 높으나 식료품 소매업 밀집도는 낮음. 따라서, 공유냉장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1인가구는 많이 살고 있으나 음식점 접근성이 낮은 양평 1,2동에 설치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을 예상하여 해당 지역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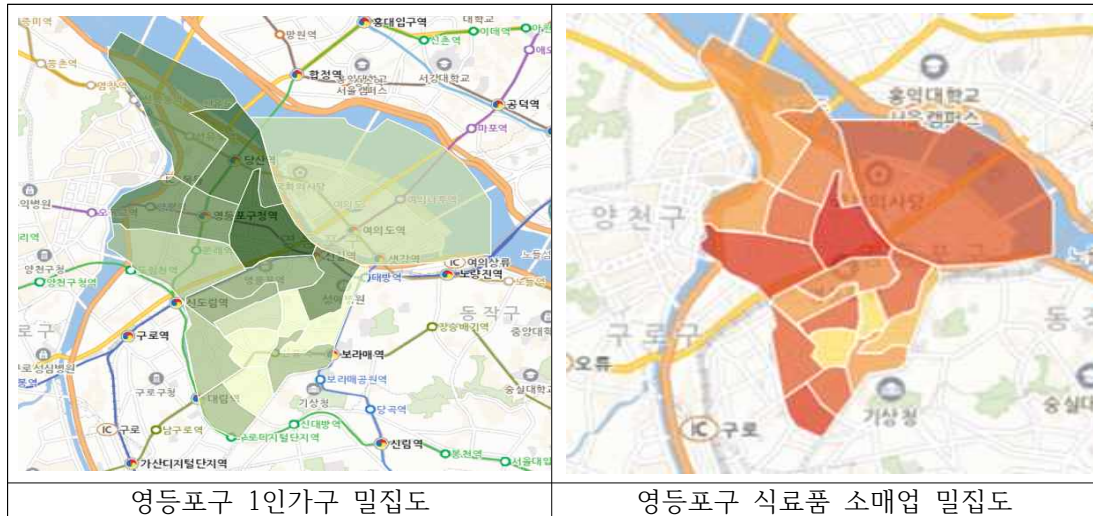


그림 1. 영등포구 1인가구 및 식료품 소매업 밀집도 표기

- 사례2: 동해시

- 동해시의 경우 1인가구 밀집도와 식료품 소매업 밀집도가 유사한 양상을 띄나, 매우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삼화동과 같이 1인가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식료품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1인 가구 밀집도가 낮으나, 해당 지역의 1인 가구의 식료품 접근의 제한성을 완화함을 동시에 1인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중요도 함께 고려하여 삼화동과 북삼동 경계 지역을 공유 냉장고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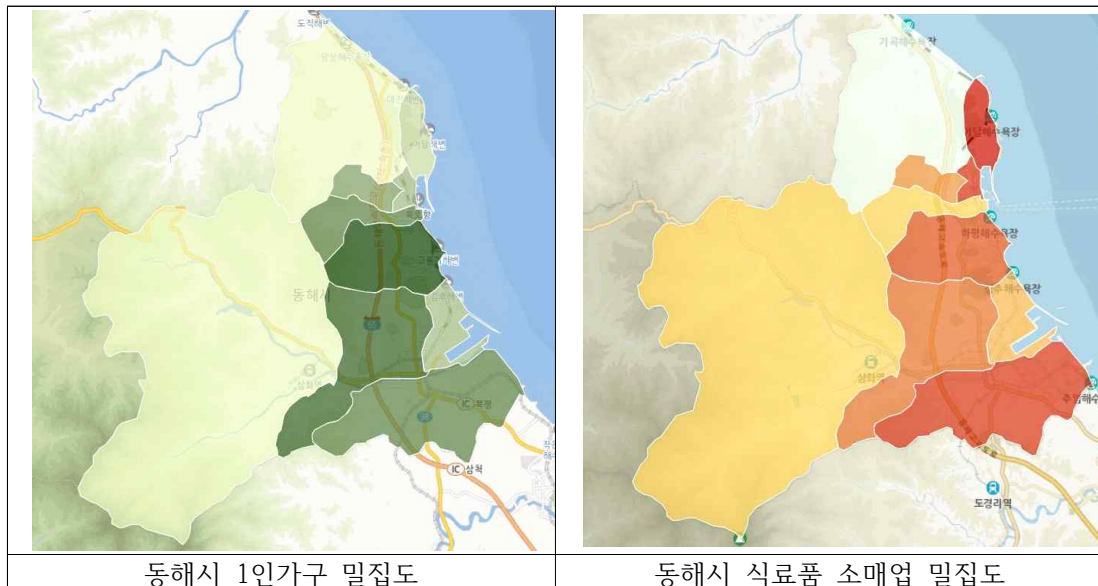


그림 2. 동해시 1인가구 및 식료품 소매업 밀집도 표기

#### (4) 사업화방안 및 기대효과

- 커뮤니티 냉장고의 기대/사회 가치 창출효과
  - 식품 영양 불균형 개선
  - 환경적 측면 : 소비하고 남는 식재료 및 생활 용품을 공유함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감소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사회구성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 가능
- 기존 1인 가구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확장 가능성
  - 텃밭, 쿠킹클래스, 소셜 다이닝 등 기존 1인가구 대상 사업과 연계
  - 커뮤니티 냉장고와 상호보완적인 활동들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와 상호 돌봄 역량 강화에 기여

### 3. 결론 및 소감

본 연구모임은 증가하는 1인 가구들의 삶의 질도 향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늘어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1인 가구 정책의 이용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인 가구들의 현재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인 가구 정책 및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을 어떠한지, 이용을 하지 않거나 이용해도 불만족스럽다면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인 가구 정책의 시공간적 접근성 부족이나 변화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및 다양성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결여, 행정상의 비효율성,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이 중 몇 가지를 보완하면서 1인 가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한 가지 정책안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정책이 현실에서 실용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1인 가구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작년에 이어 본 모임이 논의의 제한 없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풀씨 연구회 프로그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무게에 관심을 갖는 활동을 계속해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활용데이터
  - 통계청 KOSIS: 전국 가족센터 위치 : 여성가족부\_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데이터, 1인 가구 밀집도 :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통계청), 음식점 및 식료품 판매점 밀집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데이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 [www.hubbub.org.kr](http://www.hubbub.org.kr) "community fridge 'how to guide"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 서울특별시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 (2021-2025)

